



볼링볼링을 통한 세상과 소통하기

주안애중합사회복지관

주안애중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지난 3월부터 성인 여성 지적장애인의 생활체육프로그램인 '볼링볼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게 낯설어 볼링공도 겨우 던지던 이용자들은 매주 2번 볼링강습과 연습을 하며 볼링활동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랑으로 빠지던 공에 속력이 붙고, 공에 맞아 '와르르~' 무너지는 볼링핀들을 보며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날히 발전하는 볼링 실력에 '우리끼리만 알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때마침 인천시장애인복지관에서 <전국 지적장애인 볼링대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에 볼링볼링팀의 대회 출전을 결심했습니다.

대망의 대회 당일, 대회 출전을 준비한 이용자와 가족들, 오늘 하루 응원단으로 변신한 나머지 이용자들이 함께 모여 인천으로 출발했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대회 장소인 인천 미란다볼링장에 도착해 접수를 하고 개회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껏 들떠보이던 모습도 잠시, 대회에 출전하는 이용자들은 선수복으로 갈아입고 나자 한껏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진지하게 볼링선수로서 선서식에도 임하고, 단체사진도 찍으며 개회식을 마쳤습니다.



볼링볼링 출전선수들은 오후 첫 경기! 점심식사 후 바로 경기가 진행되는 볼링장 라인 앞에 섰습니다. 응원단도 귀여운 머리띠, 응원피켓, 현수막을 들고 선수들에게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볼링장과 볼링공, 신발 모든 것이 평소 연습해왔던 것과 달라 처음에는 어색해하는 모습에 걱정을 했지만 라인 위에 서자 언제 그랬냐는 듯 의연하게 공을 굴렸습니다. 투구 후에는 자연스럽게 볼링볼링의 규칙이었던 '서로 하이파이브 해주기'를 지키며 긴장된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총 3게임을 연속으로 진행하면서 점차 힘이 빠져 지쳐가기도 했지만 마지막 공까지 최선을 다해 굴리며 마무리하였고, 열심히 응원했던 다른 이용자들도 경기를 마친 선수들의 등을 토닥이며 경기를 마쳤습니다.



긴장이 풀린 선수들과 응원단은 폐회식을 기다리며 무대에서 춤도 추고, 경품 이벤트에도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선수들의 경기가 끝나고 폐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경기 결과를 기다리던 순간, 생활부문 3위로 주안애중합사회복지관 볼링볼링팀의 김윤희 선수가 호명되었습니다. 미처 수상하지 못한 선수들과 다른 이용자들도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축하해주며 그동안 함께 연습해온 시간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실제 볼링대회를 경험하고, 다른 뛰어난 선수들을 보며 앞으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도 열심히 연습해서 앞으로도 '볼링'이라는 매개체로 세상과 소통하는 볼링볼링팀이 되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